

항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최선미) 정대진(노윤경) 이필레 강준식(김정연B) 김순석(임영득) 김종진(한안나) 김창길(백경자) 김춘화 맹지혜(임기빈) 석애자(전취부) 석형기(이희순B) 성미영(박영식) 송부현(김영진) 안금자 여운희 오영순 윤병용(백남실) 윤애원 윤정호(유옥자) 이기자 이난수(방원식) 이명희(문영원) 이상희 장명원(김옥자) 최순재 최정규(김미영) 황상근 황영옥

♣ **선교헌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최선미) 이필레 김경엽(손정아) 김미희 김병율(이영숙) 김옥자(장명원) 김준구(이소은) 김춘화 맹지혜(임기빈) 박종삼(이명원) 베드로남전도회 새롬 송다해 송부현(김영진) 안금자 여운희 윤병호(양영옥) 윤영준(박진숙) 윤정호(유옥자) 이경순(배세영) 이기자 이난수(방원식) 이창교 이희순B(석형기) 임영득(김순석) 장명원(김옥자) 조규래 최기훈(정계숙) 최성현(윤정자) 최순재 하세련 한나여전도회 홍한표

♣ **감사헌금** 기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정대진(노윤경) 이필레 김경엽(손정아) 김병율(이영숙) 김선희 김정연B(강준식) 김정자 김중익(박애순) 김춘화 박경자 박권제(송명숙) 박부웅(최귀남) 백성원(안지영) 석형기(이희순B) 염영분(천세력) 윤순한(민국희) 이미자 이종문 임영득(김순석) 장명원(김옥자) 전순봉 채명업(서시철) 최성현(윤정자) 하세련 황영옥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강은미 김민서 김민성 김민준 무명 박민서 박순자 박승현 송백현 심순옥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노을 이미자 이상이 이상희 이아른 이옥남 정승현 정혜지 주성탁 최선미 황영옥

♣ **월정헌금**

주간 성경연구

47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창세기 49장 8절 ~ 21절			
월요일	창세기 49장 22절 ~ 33절	목요일	시 편 32장 1절 ~ 11절	
화요일	창세기 50장 1절 ~ 14절	금요일	시 편 33장 1절 ~ 22절	
수요일	창세기 50장 15절 ~ 26절	토요일	시 편 34장 1절 ~ 10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훈 강영성 김병율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제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옥 장명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 역 자	부 목 사	정대진	
	전 도 사	이필레	
	교육전도사	김선희	
찬 양 대	지 위 자	할 려 루 야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시온 · 에 덴 : 최원지 엔 젤 :	
	받듯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하유리 김미희 최유경 이상희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선 교 사	솔 리 스톱		
	파송선교사	태 국 : 김정숙 수 리 남 : 안석철 이성옥 미 국 : 김다니엘 미 국 : 최옥희	이 집 트 : 김신숙 A X 국 : 김해철 A X 국 : 이분옥 모 장 비 크 : 홍두표 강순영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맥 시 코 : 김홍기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즐거운교회, 가나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영등포시활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서울남노회 미래 자립위원회.		

2022. 11. 13.

회개의 결과	
음기 11장 12~20절	설교: 이진우 목사

사람에게 있어 위기는 어떠한 자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되지만 또 다른 자들에게는 축복의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똑같은 환난과 재앙을 당해도 신자와 불신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됨을 보여줌으로 성도에게 고난도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도라 할지라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도 유익 되는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고난도 유익이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찾으며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화도 복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 소발은 옴을 향해 그의 손에 죄악이 있으면 멀리 버려 장막에 불의가 있지 않게 하라고 권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꾀에 빠져 범죄 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보듬기가 두려워 숨어야 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후부터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여 담대한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소발의 말은 **어쩌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요한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자는 능히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며 두려움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 환난을 극복하는 힘이 생깁니다.**
 - 소발은 옴에게 회개를 통해 두려운 감정을 버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환난을 잊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람이 당하는 환난은 죄로 인한 결핍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는 결핍이 없었고, 사망도, 아픔도, 가난도, 재앙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세계에서는 어떠한 부정적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또한 죄의 결과로 주어진 현상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는 환난이 닥쳐도 그 환난에 잠식당하지 않고 물 흐르듯 지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 백성이 겪게 되는 환난은 궁극적으로 는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은 괴롭고 아프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난의 시기가 있어야 얻어지는 것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농부가 땅을 흘리며 수고의 시간이 있어야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처럼 성도에게는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달아 가며 경험하는** 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혹 돌이켜야 할 일과 죄에 대하여 회개함으로 인생길에서 당하는 환난을 흐르듯 떠내려 보내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 소망 속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 회개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환난을 극복한 성도는 소망 가운데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부정적 감정들을 믿음 안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했는데, 성도가 세상에서 살면서 생기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반드시 평강을 누리게 하시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결국 **현실은 결핍과 환난이 있더라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누릴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현실이고 또 살기 위한 생존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분명 환난이 피해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믿는 자에게도 환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생존의 치열한 일들 앞에서,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려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더욱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켜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이러한 은혜를 덧입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8 - 47

2022. 11. 20.

대한예수교장로회

성 현 교 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치료의 광선을 비추소서” [말라기 4장 2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 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 임 목 사	이	진	우
Senior Pastor	Yee,	Jin	Woo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 페 이 지: www.sunghyeon.or.kr

